

# 무릎이 흔들릴 때 무릎 기도

성경 예레미야애가 5:1-22

##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루 되세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똑같은 죄로 반복해서 넘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다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찬양

### 1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은혜의 찬양 257장)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잠잠할 수 없네 기쁨 춤추며 찬양해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잠잠할 수 없네 기쁨 춤추며 찬양해	주의 빛 비취 주시니 내 마음 기쁨 주 찬양하네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 2 어둔 죄악 길에서 (찬송가 523장)

- 어둔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아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후렴]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아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 말씀 읽기 예레미야애가 5:1-22

-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사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앗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 종들이 우리를 지배함이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 끓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나이다
-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 청년들이 멧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 본문 배경

예레미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시인은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공동체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으로 충격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열거하며 이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공동체(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조상뿐만 아니라 남은 자가 된 '우리'도 멸망의 책임에서 면책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죄의 결과를 알았다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모든 심판이 이루어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

의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주변 강대국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더 크고 강하기에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공동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노래합니다(21절). 시인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옛적과 같이 회복시켜 달라는 탄원을 통해 당시 유다 사람들이 품었던 소망의 윤곽을 조금이나마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죄와 고통의 굴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자신들의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만이 인간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 말씀 관찰

#### 1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이 추락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16절)

답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해설 영혼의 회복은 죄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회개할 때 시작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대로 밝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16절). 이스라엘은 자기 자녀에게 믿음이 아니라 죄를 전수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굶주림과 압제를 당했습니다(2-13절). 나라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리에는 고아와 과부가 넘쳐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 삶이 망가진 백성의 모습과 함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통회합니다. 통회의 기도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 2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순간에 무엇을 하나요? (19절)

답 여호와와 이름을 부릅니다.

해설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여호와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19절)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알려 주신 이름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변의 강대국인 애굽과 앗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21절). 하나님만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여호와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 말씀 적용

1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한 것이 아니라 죄를 전수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큰 실패를 겪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에게 힘이 된 성경 말씀이 있었다면 가족과 나눠 보세요.

### 말씀 암송

## 1-2 여호와여 우리를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 = 84

작곡 송세라

여호와여 -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5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9 우리의 날들을 - 새롭게 하사 - 다시 옛적 같게 하옵 - 소서  
 14 예레미야애가 - 오장 이십일 절 말씀 아 - 멘



### 가정에배 기도문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이키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위기의 순간에도 세상과 악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